

# “상생·협력 통한 공동 성장 도모”...한중 경제교류 시동

### 광주TP-중국총영사관-한중경제인친선협 간담회 AI·금형 등 특화 산업 소개...연계 협력 방안 모색

주광주중국 총영사관과 지역산업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한중 경제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주최하고 한중경제인친선협회가 주관한 ‘한중경제인 교류 및 지역산업 연계’ 간담회가 17일 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광주중국 총영사관 구장지(顧景奇) 총영사 등 관계자들과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문병재 한중경제인친선협회 협회장, 김보곤(許迪凱) 회장, 양승학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원장, 김귀성 디자인산업산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 및 강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산업과의 연계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

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이 경제적 동반자로서 상생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한중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병재 한중경제인친선협회 협회장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대표 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의 산업 인프라를 널리 알리고 소개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인



17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경제인 교류 및 지역산업 연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은솔 기자〉

공기능 등 다양한 첨단 산업 육성의 거점 기관인 우리 기관에 주광주중국 총영사관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 매우

기쁘다”며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국가가 이번 만남을 통해 교류 협력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

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장지 총영사는 “한국에 와서 과학

과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실감했고, 한국의 고속 성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등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를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의 지원 활동과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가 광주의 산업 인프라와 주요 지원 기관을 소개한 후, 참석자들은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의 지원 사업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모델이 집중 논의됐으며, AI, 금형 등 지역 특화 기술 및 인프라와 중국 산업의 연계를 통한 공동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또 광주테크노파크 산업 인프라 시설인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와 화장품제조 생산시설(CGMP)을 둘러보며 광주의 산업 경쟁력을 체감했다.

〈정은솔 기자〉

##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 연임 최종 확정

### 2년간 지역밀착 상생경영 성과 인정받아

광주은행은 17일 “오는 1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고병일 은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JB금융지주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자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고병일(高炳一) 현(現) 은행장을 단독 추천했으며,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후,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2023년 1월 자행 출신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한 고병일 은행장은 2년 동안 지역밀착 상생경영에 매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광주광역시 1급과 수성, 지역밀착 상생

경영 실천, 핀테크·플랫폼 제휴와 협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매년 당기 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지역민과 직원들로부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취임 후 지역과 동반성장을 꿈꾸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산층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에 큰 힘을 쏟았으며 올해 1조3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과 288억원의 민생금융지원을 발 빠르게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동반자 역할에 충신했다.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금융지원과 사회공헌활동 등의 꾸준한 정성과 노력들은 다수의 공신력 있는 제도를 통

해서도 증명됐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에서 2018년부터 7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 선정과 더불어 ▲지난 8월에는 지역 예금을 받는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지역밀착 경영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신 지역민과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고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며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힘든 시기가 예상되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리딩뱅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 광주디자인진흥원, 서남동 인쇄골목 축제 개최

### 내일 푸드트럭 음식 나눔·성과물 전시 등

광주디자인진흥원은 17일 “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오는 19일 ‘서남동 인쇄골목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쇄골목 축제’는 광주시 동구 서남동 일대 인쇄거리의 인쇄 소공인들이 교류 및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것

이다.

본 행사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며 ▲푸드트럭 음식 무료 나눔행사 ▲성과물 전시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인쇄골목 축제와 연계해 인쇄 기업 임직원들의 자율적 모금 행사도

진행해 모아진 성금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쇄골목 축제의 자세한 내용은 인쇄플랫폼 ‘할자할짜(www.hjj.co.kr)’ 공고/공지에서 볼 수 있다.

박영택 광주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 인쇄 소상공인과 함께 소통·교류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동행축제로 마련했다”며 “시민, 소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 강천산·춘향 휴게소 개방형 전환

### 도공 광주전남본부, 수지마을 초청 중식 제공 등 행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강천산 휴게소,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춘향휴게소를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휴게소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고도 휴게소 인근 일반도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휴게소다.

이날 개방형 휴게소 전환 기념으로

강천산휴게소에서는 순창발효커피 시음행사, 춘향휴게소에서는 남춘몽약과 샌드 시식행사, 남원 수지마을 어르신 초청 식사를 대접하고 두 휴게소 모두 아메리카노 커피 할인 및 방문고객 대상 기념품 제공 등의 이벤트를 실시했다.

도공 광주·전남본부는 앞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순창고추장단지 진입부 회전교차

로 표지판 2곳, 남원시 수지면 지방도(60번) 일원 6곳에 안내표지를 설치했다.

또 휴게소 후면 일반도로에서 휴게소로 이용이 가능한 연결계단을 설치했으며 휴게소 외부 고객주차장(강천산 45면, 춘향 20면)을 정비했다.

도공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개방형 휴게소로써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휴게소의 식당과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쳐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장터

#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신라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2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장터이며,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와 하천변엔 200여분 이상의 노점상인들이 위치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매달 2일, 7일로 끝나는 날

**담양군내시장**

**대전시장** 장날 : 매달 3일, 8일

**침죽시장** 장날 : 상시영업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담양군

문의 : 062)650-2099